

프랭크 봄 (1856 ~ 1919)

프랭크 봄은 미국 뉴욕의 치튼앵고(Chittenango)에서 태어났다. 봄은 리포터, 배우, 세일즈맨, 편집장 등 여러 직업을 거치다가, 1897년에 《엄마 거위 이야기(Mother Goose in Prose)》를 쓰면서 소설가로 데뷔했다. 1899년에는 《아빠 거위(Father Goose)》를 발표해 큰 성공을 거두어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

봄은 1882년에 결혼하여 네 자녀를 두었고, 장모가 아이들에게 들려 주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오즈의 마법사》(1910)를 써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오즈의 이야기는 《오즈의 마법사》 외에도 13편이 더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는 맨 처음 출간된 작품이다.

프랭크 봄은 생전에 60여 권의 책을 썼으며, 대부분은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만큼 그는 평생 어린이들을 사랑하였다.

「**오즈의 마법사**」는 캔자스의 한 농장에 사는 도로시라는 소녀가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환상의 나라 오즈에 갔다가 여러 가지 모험을 겪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이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삼촌 내외와 살던 도로시는 어느 날 강한 회오리바람에 날려 오즈의 나라에 가게 된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법사 오즈에게 부탁하는 것. 도로시는 오즈가 살고 있는 에메랄드 시로 길을 떠난다. 도중에 두뇌를 갖고 싶어 하는 허수아비, 심장을 갖고 싶어 하는 양철 인간, 용기를 갖고 싶어 하는 사자를 만나는데, 이들도 각자의 소원을 오즈에게 부탁하기 위해 도로시와 함께 간다. 하지만 오즈는 이들에게 소원을 들어 주는 대가로 먼저 서쪽 마녀를 죽이라고 말한다. 네 명의 친구들은 우여

곡절 끝에 서쪽 마녀를 죽이는 데 성공하지만...

《오즈의 마법사》는 출간된 지 2년 만에 9만 부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며, 1901년 시카고에서 뮤지컬로 상연되었고, 1939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친숙한 이야기가 되었다.

p. 10

Before You Read

〈오즈의 마법사〉의 등장인물들이 여러분께 자기 소개를 합니다. 반갑게 맞아 주세요.

도로시

전 캔자스에 사는 그냥 꼬마 여자아이입니다. 전 엠 숙모와 헨리 삼촌과 함께 살지요. 내 강아지 토토 빼고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어느 날 저와 토토가 집 안에 있는데, 엠 숙모와 헨리 삼촌의 집이 폭풍에 휩쓸려 들어올려졌어요. 집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우린 더 이상 캔자스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자

어흥! 무섭지 않나? 안 무섭다고? 솔직히 난 별로 용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동물들을 겁주어 쫓아버리지. 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서워. 그들이 날 해치려 들까봐 겁나거든. 난 좀더 많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

양철 인간

실 하오. 이 기름통 좀 집어서 내 등에 기름을 좀 넣어 주시겠소? 고맙소. 난 힘센 양철 인간이오. 난 내 도끼로 나무를 베어 넘어뜨릴 수도 있고 무서운 동물들과 싸워 물리칠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사랑을 할 수가 없대요! 아, 심장이 있어서 감정을 느낄 수만 있다면!

허수아비

난 위대한 마법사 오즈요. 난 전지전능하지. 그리고 난 에메랄드 시의 왕이오. 난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기도 하오. 아마도 내 정체를 알면 놀랄 걸.

p. 26-27

Understanding the Story

〈오즈의 마법사〉는 책으로뿐만 아니라 연극 및 영화로도 큰 흥행을 거둔 작품입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오즈의 마법사〉의 성공

〈오즈의 마법사〉가 대성공을 거둔 지 1년 후, 작가 프랭크 봄은 그의 소설을 극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1902년 6월, 희극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가 시카고의 매지스틱 시어터에서 개막되었습니다. 그 뮤지컬은 큰 찬사를 받아서, 동명의 또 다른 연극이 이듬해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 작품은 브로드웨이의 대성공작 중 하나가 되었고, 향후 10년 동안 순회 흥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939년, MGM(미국의 유명 영화제작사)은 그 이야기를 영화화하기로 결정했죠.

〈오즈의 마법사〉는 최 의 컬러 영화 중 하나였습니다. 효과를 위해, 오즈에서의 장면들만 컬러로 찍었고, 반면 캔자스에서 일어난 장면들은 흑백으로 찍었죠.

이 영화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했고,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하여 아카데미상 6개 후보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피플〉지에 의해 '20세기의 최고 인기 영화'로 발표되었습니다. 1956년에서 1974년 사이 이 영화가 수차례 텔레비전에 정기적으로 방영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상 다른 어떤 영화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 72-73

Understanding the Story

혹시 '오즈'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한 분들 없나요?

또, 도로시의 신발은 빨간색 아니냐고 의아해하는 분들 없나요? 그럼 이에 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 보기로 해요.

‘오즈’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

프랭크 봄은 어떻게 '오즈'라는 이름을 생각해 냈을까요? 다음은 봄이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내 바로 앞에 있는 책상에는 작은 캐비닛 편지 파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의 제목을 생각하는 중이었고, 제목의 일부로 '마법사'를 이미 결정해 놓았죠. 내 시선은 캐비닛의 세 서랍에 붙은 금박 글자에 사로잡혔습니다. 첫번째는 A-G였고, 다음 서랍엔 H-N이 붙어 있었고, 마지막에 O-Z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Oz'가 곧바로 제목이 되었죠.

〈오즈의 마법사〉가 영화로 만들어질 때 몇 가지 사소한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변화 중 하나는 도로시의 요술 구두 색깔을 바꾼 것이었죠. 프랭크 봄이 쓴 원작에서 도로시의 구두는 은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영화에서는 구두가 빨간 색이어야 한다고 결정했죠. 이것은 1930년대 후반에 영화 산업을 휩쓴 새로운 색소 과학기술을 심분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화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설을 이미 읽었더라도, 도로시의 구두는 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라고 말하곤 했죠!

【제1장】 거대한 바람

p. 12-13 이것은 도로시의 이야기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그녀는 캔자스에 있는 헨리 삼촌과 엠 숙모와 함께 살려 갔다. 캔자스는 종종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가족은 항상 바닥 밑에 있는 굴로 들어갔다.

어느 날, 헨리 삼촌이 문간에 서서 젓빛 하늘을 내다보았다.

“강한 바람이 오고 있어, 엠.”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난 동물들을 보살피러 갈게. 도로시를 굴속으로 데려가, 빨리.”

그런데 토토가 도로시의 품 밖으로 뛰어 나와 침대 밑으로 달려갔다. 토토는 그녀의 자그마한 검은 개였다. 도로시는 토토를 삼으려고 했다. 엠 숙모는 바닥 밑의 작고 어두운 곳으로 기어 내려가서 도로시에게 오라고 불렀다. 그러나 바람이 아주 세차게 집을 후려쳐서, 도로시는 토토를 안은 채 바닥에 넘어졌다.

p. 14-15 토토가 차가운 작은 코를 도로시의 얼굴에 대자, 그녀는 눈을 떴다. 이제 바람은 불지 않고, 햇빛이 비쳤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여긴 캔자스가 아니야!” 그녀가 토토에게 말했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는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꽃들, 강과 키 큰 과일 나무들을 보았다.

“그리고 이 조그만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고 도로시는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의 키와 비슷한 정도로 작았고, 옷은 모두 파란색이었다. 한 할머니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착한 마녀님, 먼치킨들의 나라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당신이 사악한 동쪽 마녀를 죽였어요!”

도로시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전 마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네 집이 그랬구나.” 할머니가 웃었다. “봐!”

그녀는 은빛 구두를 신은 채 집 밑에 깔린 두 발을 가리켰다.

p. 16-17 “집이 저 여자 위로 떨어졌군요!” 도로시가 외쳤다. “어떡하죠?”

“어쩔 수 없어.”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아주 나쁜 마녀였어. 게다가 수년 동안 먼치킨들을 자기 하인으로 만들었지. 그들은 동 의 백성들이고, 난 그들의 친구란다. 난 북쪽 마녀야.”

“하지만 마녀들은 나쁜겁잖아요!” 도로시가 조금 두려워하며 말했다.

“모든 마녀가 다 그런 건 아니야. 오즈의 나라에는 네 명의 마녀가 있단다. 착한 마녀 두 명, 나와 남쪽 마녀야. 그리고 사악한 마녀 두 명, 서쪽 마녀와 동쪽 마녀지. 이제 네가 동쪽 마녀를 죽였으니 까 이 은빛 구두는 네 거야.”

그녀는 신발을 집어서 도로시에게 주었다.

“고맙습니다.” 도로시가 말했다. “하지만 캔자스에 있는 숙모와 삼촌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저 좀

도와 주시겠어요?”

그들은 모두 고개를 기로저었다. 도로시기 옮기 시작하자, 착한 작은 먼치킨들도 올었다.

p. 18-19 “올지 마” 마녀가 말했다. “에메랄드 시로 가 봐.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그곳에 살고 있단다. 어쩌면 그분이 널 도와 주실 수 있을 거야.”

“거기에 어떻게 가죠?”

“걸어서. 난 너와 함께 갈 수 없어. 하지만 키스를 해 줄게.”

키스는 도로시의 얼굴에 둥글고 빛나는 자국을 남겼다.

“이제 어떤 것도 널 해치지 못해.” 그녀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자, 그 도시로 가는 길은 노란 벽들로 되어 있어. 길을 잃을 일은 없단다. 위대한 오즈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 그분에게 네 얘기를 하고 도와 달라고 부탁만 하면 돼. 잘 가라, 애야!”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작은 바구니를 가져와 그 안에 빵을 담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은빛 구두를 신었다. 신발은 그녀의 발에 딱 맞았다.

그녀는 바구니를 들었다.

“가자, 토토.”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마법사에게 캔자스로 돌아가는 방법을 물어 보자.”

p. 20-21 도로시의 토토는 곧 노란 벽들 길을 찾았고, 그 길을 따라 푸른 들판과 피란 먼치킨 집들을 지나쳐 걸었다.

몇 마일 지난 후, 도로시는 걸음을 멈추고 길 옆의 울타리에 앉았다. 울타리 뒤에는 넓은 들판이 있었고, 그 안에는 새들을 쫓아내기 위해 허수아비가 막대기에 매달려 있었다. 허수아비의 머리는 작은 주머니였고, 위에 먼치킨 모자를 쓰고 있었다. 허수아비의 한쪽 눈이 떠졌다! 토토가 그것을 보고 짊어냈다.

“안녕.” 허수아비가 말했다. “잘 지내니?”

“잘 지내. 고마워.” 도로시가 말했다. “넌 어때?”

“별로야. 난 이 막대기가 싫어. 이것 좀 치워 줘.”

도로시는 불쌍한 허수아비를 막대기에서 떼어냈다.

“고마워.”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런데 넌 누구고, 어디로 가고 있니?”

“내 이름은 도로시아. 위대한 오즈를 만나서 널 캔자스로 돌려보내 달라고 부탁하려고 에메랄드 시로 가는 중이야.”

p. 22-23 “에메랄드 시가 어디 있는데?” 허수아비가 물었다. “그리고 오즈가 누구야?”

“어머, 넌 모르니?”

“난 아무것도 몰라. 보다시피 난 두뇌가 없고 짚뿐이야.”

“불쌍한 허수아비!” 도로시가 말했다. “나랑 에메랄드 시에 가서 위대한 오즈에게 두뇌를 달라고 부탁해 봐!”

“아, 그래!” 허수아비가 말했다.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노란 벽들 길을 따라 출발했다. 토토는 처음에 도로시의 새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에게 짊어냈다.

“무서워하지 마.” 도로시가 말했다.

“무섭지 않아.” 허수아비가 말했다. “저 개는 날 해칠 수 없어. 난 그냥 짚으로 만들어졌거든. 그

리고 네 바구니를 내게 줘. 난 지치지 않으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불이야.”

“알겠어.” 도로시가 말했다. “그럼 가자.” 그리고 그녀는 허수아비에게 바구니를 주었다.

【 제 2 장 】 새로운 친구들

p. 28-29 노란 벽돌 길은 그들을 울창한 숲으로 이끌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제 길이 안 보여.” 도로시가 말했다.

“봐!” 허수아비가 말했다. “작은 집이 있어! 저기로 가자.”

거기서 도로시는 옆에 토토를 데리고 마른 나뭇잎들로 된 잠자리에 누워 잤다. 허수아비는 절대 지치지나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았다. 그는 그냥 서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도로시가 눈을 뗄 때, 날씨는 화창했다. 그녀는 물을 찾아서 씻고 마시기도 했다. 그녀와 토토는 빵을 조금 먹었다. 그때 그녀는 어떤 비명 소리를 들었다.

“뭐였지?” 그녀가 말했다.

“가서 알아보자.” 허수아비가 말했다. 또 비명이 들렸다. 그들 뒤에 양철로 만들어진 인간이 있었다. 토토가 짖어대며 그를 물려고 했다. 하지만 토토는 그 인간의 양철 다리에 이빨을 디치기만 했다.

“네가 소리쳤니?” 도로시가 물었다.

“응, 그래. 내 기름통을 가져와서 내게 기름 좀 쳐 줘. 기름통은 집 안에 있어.”

p. 30-31 도로시는 그 작은 집으로 달려가서 기름통을 가져왔다. 그녀와 허수아비는 양철 인간에게 기름을 줬다.

“고마워.” 그가 말했다. “난 새것처럼 좋아졌어. 그런데 너희는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우린 위대한 오즈를 만나러 에메랄드 시로 가는 길이야.” 도로시가 말했다. “보다시피 난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고, 허수아비는 두뇌를 갖고 싶어 해.”

양철 인간이 잠시 생각하고 나서 물었다.

“그분이 내게 심장을 줄 수 있을까?”

“부탁해 보자!” 도로시가 말했다. 그리하여 양철 인간은 도끼를 집어 들고, 도로시의 바구니에 기름통을 넣고, 숲속으로 뻗은 노란 벽돌 길을 따라 출발했다.

“사악한 동쪽 마녀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양철 인간이 말했다. “난 여전히 나무를 잘 베어낼 수 있지만, 심장이 없어. 다른 사람들과 같았을 때, 난 사랑도 했고 아주 행복했어. 내가 다시 심장을 가질 수 있는지 오즈에게 물어 볼 기야.”

p. 32-33 그들은 숲속을 걸어가다 나무들 사이에서 동물의 소리를 들었다. 도로시의 가슴이 덜컥했다.

“무서워하지 마.” 양철 인간이 말했다. “그 무엇도 허수아비와 날 해칠 수 없고, 그 무엇도 널 해칠 수 없어. 네 얼굴에는 마녀의 키스가 있으니까.”

“하지만 누가 토토를 돌보지?” 도로시가 물었다.

“우리가!” 양철 인간이 말했다.

바로 그때 커다란 사자가 그들을 향해 덤벼들었다. 토토가 큰 소리로 짖어댔다. 사자는 몸을 돌려

그 작은 개를 보고는 커다란 입을 벌렸다.

“시자기 토토를 죽이겠어!” 도로시가 외쳤다.

그녀는 사자에게 달려가 코를 때렸다.

“그만 해, 이 덩치만 큰, 나쁜 사자 같으니! 내 작은 토토를 물지 마!”

p. 34-35 “난 그를 해치지 않았어.” 사자가 말했다. “네가 날 때렸지!”

“네가 날 물려고 했잖아.” 도로시가 대답했다. “넌 덩치만 큰 겁쟁이구나!”

“나도 알아.” 사자가 말했다. 그리고 아주 슬퍼 보였다. “난 아주 큰 소리를 내. 그러면 모두가 날 두려워하더라. 하지만 네 작은 개가 날 보고 쫓았을 때 내 가슴은 덜컥 했어. 그 개는 겁쟁이가 아니야, 그렇지? 그 개는 나를 겁주려고 했어. 그 개는 용기가 있어.”

그러자 도로시는 사자에게 마법사 오즈에 대해 얘기했다.

“그분이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사자가 물었다.

“우리와 함께 가서 그에게 부탁해 봐!” 도로시가 대답했다. “넌 다른 동물들을 쫓는 걸 도울 수 있어!”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노란 벽돌 길을 따라 걸었다. 사자와 토토는 곧 좋은 친구가 되었고, 그들 모두 큰 나무 밑에서 밤을 보냈다.

p. 36-37 아침에 그들은 모두 노란 벽돌 길을 따라 다시 출발했다. 하지만 곧 그들은 길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도랑에 이르렀다.

“어떡하지?” 도로시가 말했다.

“몰라.” 양철 인간이 말했다.

“난 이걸 건 뿔 수 있을 것 같아.”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그러면 네가 한 번에 한 명씩 우리를 네 등에 태워 건네줄 수 있어.” 허수아비가 말했다.

“글쎄, 해 볼게.” 사자가 말했다. “누가 먼저 갈래?”

“내가 갈게.”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 무엇도 날 해칠 수 없으니까 난 두렵지 않아.”

허수아비가 사자의 등에 앉자, 그 커다란 동물은 맞은편으로 뛰었다. 그 다음에 사자는 토토를 안은 도로시를 태웠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돌아와서 양철 인간을 데리고 갔다.

p. 38-39 도랑 이쪽의 숲은 매우 울창하고 어두웠다.

“칼리다들이 여기에 살아.” 겁쟁이 사자가 말했다. “호랑이 같은 머리와 갈 같은 이빨을 가진 커다란 동물들이야. 난 그들이 아주 두려워!”

그때 그들은 또 다른 도랑에 이르렀는데, 처음 것보다 더 넓었다.

“이걸 못 건 뿔겠어.” 사자가 말했다.

“양철 인간, 저 큰 나무를 베어 봐.” 허수아비가 말했다. “우린 그것을 다리로 쓸 수 있어.”

“훌륭해!” 사자가 말했다. “허수아비, 넌 두뇌가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양철 인간이 곧 나무를 거의 베어내자, 사자가 그것을 믿었다. 나무가 다리처럼 도랑을 가로질러 쓰러졌다. 그들이 건 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두 마리의 칼리다가 숲에서 뛰어나왔다.

겁쟁이 사자는 두려웠지만, 다리 끝에 서서 칼리다들을 물려서 있게 했다. 그런 다음 사자도 건넜다.

“지금이야, 양철 인간, 도끼를 사용해!” 허수아비가 소리쳤다. 나무가 도랑 속으로 떨어졌다. 추악한 칼리더들도 나무와 함께 떨어졌다.

p. 40-41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여행을 계속했다. 노란 벽돌 길은 그들을 붉은 양귀비 들판으로 이끌었다.

이 꽃들의 향기는 사람들을 잠들게 한다. 곧 도로시의 두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

“꽃 향기가 나도 졸리게 하고 있어.” 사자가 말했다. “그리고 봐! 토토도 잠들었어!”

허수아비와 양철 인간은 졸리지 않았다.

“달려.” 허수아비가 사자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 들판에서 나가. 우린 도로시와 토토를 데려갈 수 있지만, 넌 너무 무거워!”

그들은 손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도로시와 토토를 실어 꽃밭을 지났다. 하지만 겁쟁이 사자는 양귀비 들판 끝 바로 근처에서 잠들어 버렸다.

“가없는 사자.” 양철 인간이 슬퍼하며 말했다. “그는 겁쟁이었지만, 좋은 친구였어. 하지만 우린 계속 가야 해.”

p. 42-43 그들은 도로시와 토토를 강 옆의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갔다. 바로 그때 그들은 작은 회색 쥐를 노려보고 있는 키다리강 못생긴 고양이 한 마리를 보았다.

“난 심장이 없어.” 양철 인간이 말했다. “하지만 저 가없는 작은 쥐를 해치는 건 나쁘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그는 도끼로 고양이를 죽였다.

“고마워!” 쥐가 말했다. “난 생쥐들의 왕이야. 내가 뭘 해 줄까?”

허수아비가 재빨리 말했다. “와 네 부하 쥐들이 우리 친구인 겁쟁이 사자를 양귀비 들판에서 데리고 나오면 돼.”

왕은 수백 마리의 생쥐들을 데려왔다. 양철 인간은 나무를 잘라 수레를 만들었다. 양철 인간과 허수아비는 사자를 수레 위로 밀어 올렸다. 그런 다음 쥐들은 양귀비 들판 밖으로 수레를 끌었다.

도로시, 토토, 그리고 사자는 모두 깨어나서 쥐들에게 감사했다.

【 제 3 장 】 위대한 오즈

p. 46-47 그들은 노란 벽돌 길을 따라 다시 출발해 푸른 들판을 통과했다. 집들도 녹색이었고, 사람들은 선명한 녹색 옷을 입고 있었다.

“에메랄드 시에 거의 다 온 것 같아.” 도로시가 말했다. 곧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하늘에서 아름다운 녹색 빛을 보았다.

그 도시를 둘러싼 거대한 성벽이 있었다. 성벽에는 커다란 녹색 성문이 있었고, 그 문에 붙은 에메랄드들이 햇빛에 빛났다.

“다 왔어.” 도로시가 말했다.

도로시가 벨을 울렸다. 커다란 성문이 열리자, 그들 모두 높다란 녹색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곳에 한 작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옷은 모두 녹색이었다. 그의 얼굴 역시 녹색이었고, 큰 녹색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에메랄드 시에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물었다.
“우린 위대한 오즈를 만나고 싶어요.” 도로시가 말했다.

p. 48-49 “그러면 이 안경을 써야 합니다.” 녹색 인간이 말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밤낮으로 안경을 써야 하지요. 마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 니다.”

그가 상자를 열었다. 상자는 안경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안경을 썼다.

“이 으로 오세요.” 하고 말하며 그는 그 밝고 아름다운 도시의 거리로 그들을 데려갔다.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것이 녹색이었다. 사람도 집도 거리도, 그리고 다른 것들도.

그들은 밝은 녹색 건물 앞에서 멈췄다. 한 녹색 병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분들이 위대한 오즈님을 뵈고 싶답니다.” 녹색 인간이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하고 병사는 자리를 떴다. 그들은 한참 동안 기다렸다. 마침내 병사가 돌아왔다.

“오즈를 만나셨나요?” 도로시가 물었다.

“아뇨.” 병사가 말했다. “그분은 높은 막 뒤에 계셔서, 우리는 결코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한 명씩 당신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방으로 모시지요. 오즈님이 아침에 당신들 중 한 명을 데리러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p. 50-51 다음 날 아침, 식사 후에 병사가 도로시와 토토를 알현실로 데려갔다. 높은 지붕과 사방에 큼직하고 빛나는 에메랄드가 있는 곳이었다. 방 한가운데에 높다란 녹색 옥좌가 있었다. 옥좌에는 팔과 다리가 없는 커다란 머리가 하나 있었다. 두 눈은 도로시를 쳐다보았고, 입이 열리면서 목소리가 말했다. “난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다. 난 누구고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도로시예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두 눈이 잠시 동안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은빛 구두는 어디서 났느냐?”

“사악한 동쪽 마녀에게서요.”

“네 얼굴에 있는 그 빛나는 자국은 어디서 생긴 거냐?”

“이것은 북쪽 마녀의 키스예요. 그녀가 저를 당신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오즈가 물었다. “내가 뭘 해 주기를 원하느냐?”

“저를 캔자스에, 엠 숙모와 헨리 삼촌에게 돌려보내 주세요.”

p. 52-53 “넌 왜 내게 부탁하느냐? 난 사악한 동쪽 마녀를 죽일 정도로 강했는데 말이야.” 오즈가 말했다.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도로시가 말했다. “제 집이 그녀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즈가 말했다. “이 나라에서는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 대신 사악한 서쪽 마녀를 죽여라. 그러면 넌 캔자스로 돌아갈 수 있다.”

천천히, 그리고 슬프게, 도로시는 알현실에서 나와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병사가 허수아비를 알현실로 데려갔다.

옥좌에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옷은 온통 녹색이었고 에메랄드로 빛났다.

“난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다.” 그녀가 말했다. “넌 누구고,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짚으로 가득 찬 허수아비예요. 당신에게 두뇌를 청하러 왔습니다.”
오즈는 그에게 사악한 서쪽 마녀를 죽여야 하고, 그러면 그가 원하는 만큼의 두뇌를 기질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허수아비는 슬퍼하며 친구들에게 돌아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p. 54-55 다음 날 아침, 병사가 양철 인간을 알현실로 데려갔다. 이번에는 옥좌에 무시무시하고 못생긴 동물이 있었다. 머리는 코끼리의 머리만큼 컸지만, 다섯 개의 빛나는 녹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양철 인간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없어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양철 인간이 말했다. “저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심장을 주세요.”
그 거대한 동물은 그에게 사악한 서쪽 마녀를 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최고이자 가장 착한 심장을 기질 수 있다!”

다음 날은 겁쟁이 사자 차였다. 이번에는 옥좌에 커다란 불덩이가 있었다.
사자는 오즈에게 용기를 달라고 청했지만, 오즈는 도로시, 허수아비, 양철 인간에게 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말을 했다.
사자는 슬퍼하며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면 내일 출발하자!” 도로시가 말했다.

[제 4 장] 사악한 마녀

p. 58-59 네 명의 친구들은 에메랄드 시를 뒤로 한 채 떠났다.
지금 사악한 서쪽 마녀는 눈이 한 개밖에 없었지만, 그 눈은 모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성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도로시와 친구들을 보았다. 마녀는 40마리의 커다란 회색 늑대들을 불렀다.
“가라.”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들을 갈기갈기 물어뜯어라!”
허수아비와 양철 인간이 늑대들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싸울게.” 양철 인간이 말했다. “내 뒤로 물러서.”
그는 도끼를 들고 늑대들의 머리를 차례차례 베어냈다.
“잘 싸웠어, 친구.” 허수아비가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사악한 마녀는 성문에 서서 죽은 늑대들을 보았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났다.

p. 60-61 마녀는 40마리의 커다란 검은 새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저들에게 날아가 갈기갈기 물어뜯어라!”
“내가 싸울게.” 허수아비가 말했다.
허수아비는 새들의 목을 모두 부러뜨렸다.
사악한 마녀가 성의 창문 밖을 내다보니 죽은 새들이 보였다. 그녀는 벌들을 불렀다.
“그들에게 침을 쏘아라!” 그녀가 외치자, 벌들이 날아갔다.
허수아비가 맨 먼저 그들을 보았다.

“내 짚을 가져가.” 그가 양철 인간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도로시, 토토, 그리고 사자 위에 덮어. 그러면 벌들은 그들에게 침을 쏠 수 없어.”

벌들이 와서 양철 인간만 발견했다. 벌들은 모두 그의 양철 팔과 다리에 침이 전부 부러져 죽었다. 그러자 도로시, 토토, 그리고 사자는 일어나서 짚을 다시 허수아비에게 넣었다.

이번에 마녀는 원키들을 불렀다. 그들은 그녀의 하인들이었다.

“저들을 모두 죽여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사자가 일어서서 성난 소리를 냈다. 원키들은 겁을 먹고 달아났다.

p. 62-63 마녀는 매우 화가 났다. 그녀는 요술 모자를 벽장에서 꺼내어 외쳤다. “나는 원숭이들아, 오라!”

나는 원숭이들이 그녀에게 왔다. 그들의 왕이 말했다.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가서 저들을 죽여라.” 그녀가 네 친구들을 가리켰다. “아냐, 기다려... 사자는 나한테 데려와라. 그놈에게 수레를 끌게 해야겠어!”

몇몇 원숭이들은 양철 인간을 들어 높이 데려간 다음, 그를 단단한 돌 위로 던져 버렸다. 다른 원숭이들은 허수아비를 잡아 그의 밀짚을 모두 뽑아 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텅 빈 옷을 높은 나무에 던졌다. 또 다른 원숭이들은 사자를 묶어 사악한 마녀의 성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자를 높은 성벽 뒤에 두었다.

하지만 그들은 도로시나 토토를 해치지 못했다. 원숭이 왕이 도로시의 얼굴에 있는 착한 마녀의 키스 자국을 본 것이다.

“우린 이 꼬마 소녀를 해칠 수 없어.” 그가 다른 원숭이들에게 말했다. “애를 성으로 데려가야겠다.”

p. 64-65 성에서 마녀는 도로시의 얼굴에 있는 키스 자국과 은빛 구두를 보고 겁이 났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생각했다. “난 애를 해칠 수 없지만, 애는 마법에 대해 모르고 있어. 애를 내 하인으로 삼아도 되겠다.”

그녀는 도로시에게 말했다. “내 부엌으로 와서 이 단지들과 팬들을 닦아라!”

그런 다음 마녀는 사자를 돌아보았다.

“넌 날 위해 수레를 끌게 될 것이다.”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사자는 그녀를 물려고 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좋아!” 마녀가 말했다. “네게 음식은 없다!”

하지만 도로시는 밤에 마녀가 잠자는 사이 사자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다.

이제 사악한 마녀는 도로시의 은빛 구두를 무척 갖고 싶어 했다. 도로시는 몰랐지만, 그 구두는 요술 구두였다. 도로시는 잠을 자거나 목욕하려고만 구두를 벗었다. 마녀는 어둠을 무서워해서 밤에는 도로시의 방에 구두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물을 몹시 무서워했다. 왜냐하면 물은 사악한 마녀들을 죽게 만들기 때문이다.

p. 66-67 어느 날 도로시의 한쪽 발이 땀가에 걸려서, 은빛 구두 한 짝이 벗겨졌다. 사악한 마녀는 곧장 그것을 집어 자신의 못난 발에 신었다.

“둘러줘요!” 도로시가 말했다.

“안 돼.” 사악한 마녀가 말했다. “이제 이젠 내 거야!”
 “이 사악한 늑은 미녀 같으니!” 도로시가 외쳤다. 그녀는 재빨리 물그릇을 집어 마녀에게 던졌다.
 “도와줘!” 마녀가 외쳤다. “물이 날 죽일 거야!”
 곧 그녀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바닥에는 은빛 구두 한 짝만 남아 있었다. 도로시는 구두를 집어서 씻고 말린 다음, 다시 그것을 신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사자가 갇힌 곳의 문을 열어 주러 달려갔다.

p. 68-69 도로시와 사자는 원키들을 불러서 말했다. “마녀는 죽었어. 이제 우리가 양철 인간과 허수아비를 찾는 걸 도와줘.”

원키들이 부서진 양철 인간을 찾았다. 그 다음 스무 마리의 원키들이 그를 고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곧 그가 일어나서 춤을 약간 추었다.

“난 새것처럼 좋아졌어!” 그가 말했다. “이제 허수아비를 찾자.”

원키들은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허수아비의 옷을 찾았다. 양철 인간이 나무를 살랐다. 원키들이 새 짚으로 옷을 채우자, 허수아비는 곧 새것처럼 좋아졌다.

이제 도로시와 친구들은 성에서 즐거운 나날을 며칠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로시는 캔자스에 있는 숙모와 삼촌 생각이 났다.

“아, 집에 가고 싶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난 심장을 갖고 싶어!” “그리고 난 두뇌를 갖고 싶어!” “그리고 난 용기를 갖고 싶어!”

그래서 그들은 원키들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이제 원키들은 양철 인간을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돌아와서 그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청했다. 그는 그들에게 약속을 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도로시는 요술 모자를 가져갔다.

【 제 5 장 】 오즈의 마법

p. 74-75 네 친구는 또 다시 커다란 성문에 도착했고, 작은 녹색 인간에게서 안경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알현실에 갔지만, 옥좌는 텅 비어 있었다. 천장 부근의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다.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도로시가 물었다.

“나는 어디에든 있다.” 목소리가 말했다.

“우리는 사악한 서쪽 마녀를 죽였어요.” 도로시가 말했다. “이제 약속을 지켜 주세요.”

“이런,” 목소리가 말했다. “내일 다시 오 라. 난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시간이 왜 필요하죠?” 양철 인간이 물었다. “우린 조금도 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켜야 해요.” 도로시가 말했다. “우린 지켰잖아요.”

사자는 매우 화가 나 보였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가 높은 막을 넘어뜨리자, 그 뒤에 작은 노인이 있었다.

p. 76-77 “당신은 누구세요?” 양철 인간이 외치며 도끼를 집어 들었다.

“내가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다.” 작은 노인이 말했다. “날 때리지 말게, 착한 친구. 보다시피 난 마법사가 아니라네.”

“마법사가 아니라고요?” 도로시가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했죠?”

오즈는 알현실 뒤에 있는 작은 방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그들은 커다란 종이 머리를 보았다.

“난 줄을 당겨 입을 움직이지.” 그가 말했다. 그들은 여자 옷과 커다란 종이 공을 보았다.

“당신은 정말 엄청난 사기꾼이군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래, 맞아.” 작은 노인이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난 기구를 타고 오마하에서 여기로 날아왔어.”

“어머, 거긴 캔자스 근처인데!” 도로시가 말했다.

“그래... 기구는 이곳에 내려왔고, 난 이 도시를 건설했어. 이 나라가 아주 푸르고 아름다워서, 난 이곳을 에메랄드 시라고 불렀지. 하지만 난 마법사가 아니야. 그래서 자네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네.”

p. 78-79 “그러면 저에게 두뇌를 줄 수 없나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자네는 어떠한 두뇌도 필요 없어. 자네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으니깐.” 오즈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허수아비의 슬픈 표정을 보았다.

“좋아, 그럼, 내일 새 두뇌를 받으러 나에게 오게.”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제 용기는요?” 사자가 말했다.

“자네는 용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네. 하지만 내일 용기를 받으러 나에게 오게.”

“제 심장은요?” 양철 인간이 물었다.

“자네 왜 심장을 원하냐?” 오즈가 물었다. “심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지. 하지만 내일 자네의 새 심장을 받으러 나에게 오게.”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캔자스로 돌아가죠?” 도로시가 말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야.” 오즈가 말했다. “내게 며칠 시간을 줘. 내 하인들이 널 돌봐 줄 거야. 다만 ‘오즈는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그들에게는 하지 말아 줘.”

도로시는 약속했다.

p. 80-81 다음 날 아침 오즈는 허수아비를 알현실로 불렀다.

그는 허수아비의 머리에서 짚을 꺼내고 작은 나무 조각들을 많이 넣었다.

“자! 자네 이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가 말했다.

행복한 허수아비는 그의 친구들에게 보여 주러 달려갔다.

다음은 양철 인간 차례였다.

“난 자네 왼쪽 가슴에 구멍을 뚫을 거야. 아프지는 않을 걸세.” 오즈가 그에게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벽장으로 가서 작고 예쁜 빨간 심장을 꺼냈다.

“예쁘군요!” 양철 인간이 말했다. “그런데 이거 착한 심장인가요?”

“아주 착하지.” 오즈가 대답했다.

그는 양철 인간의 왼쪽 가슴에 그 심장을 넣었다. 양철 인간은 매우 행복했다.

다음엔 사자가 알현실에 갔다. 오즈는 벽장에서 녹색 병을 꺼냈다.

“이것을 마시게.” 그가 말하자, 사자가 마셨다.
“시자, 이제 자네는 용기로 가득 찼네!”
행복한 사자는 그의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p. 82-83 하지만 도로시는 어떻게 됐을까? 사흘 동안 그녀는 오즈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고,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슬펐다.

나흘째 되는 날, 오즈가 그녀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다.

“얘야,” 그가 말했다. “바람이 널 이곳으로 날려 보냈고, 난 기구를 타고 왔어. 그러니 우린 기구를 만드는 거야! 그 기구가 우리 둘을 캔자스로 데려다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일을 시작했고 커다란 녹색 풍선을 만들었다. 그것을 만드는 데 사흘이 걸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커다란 빨래 바구니를 녹색 풍선 밑에 묶었다.

오즈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했다. “난 다른 마법사를 만나러 갈 것이다. 그는 구름 속에 살고 있다.”

모두가 사별인사를 하러 왔다. 양철 인간은 나무를 살라 큰 불을 피웠다. 오즈는 풍선 바닥을 불 위에 대었다. 곧 기구는 뜨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p. 84-85 오즈는 바구니에 올라타서 외쳤다. “내가 없는 동안 허수아비가 너희들의 왕이 되길 바란다.”

그는 도로시를 돌아보았다. “이제 떠!”

“아무데서도 토토를 못 찾겠어요.” 도로시가 말했다. “전 개를 두고 떠날 수 없어요.”

마침내 그녀는 토토를 발견했다. 그녀는 토토를 들고 기구로 달려갔다. 너무 늦었다! 기구는 이미 공중에 떠 있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녀가 외쳤다.

“할 수 없단다, 얘야.” 오즈가 바구니에서 외쳤다. “안녕!”

그리고 누구든 훌륭한 마법사 오즈를 본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에메랄드 시의 사람들은 말했다. “그분은 항상 우리들의 친구였어. 이제 우리에게겐 최고 두뇌를 가진 허수아비 왕이 있다!”

【 제 6 장 】 집으로 가는 길

p. 88-89 “난 캔자스로 돌아가고 싶어.” 도로시가 울었다. “허수아비, 넌 두뇌가 있잖아. 나 어떡 하지?”

허수아비가 생각한 다음 말했다. “나는 원숭이들에게 너를 그곳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봐.”

도로시는 요술 모자를 쓰고 원숭이들을 불렀다.

“뭘 도와 드릴까요?” 그들의 왕이 말했다.

“나를 캔자스에 데려다 줘.” 도로시가 말했다.

그러나 원숭이 왕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희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가 말했다. “남쪽 마녀에게 부탁해 보세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마녀들 중 가장 강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요. 그녀의 성은 남, 콰들링들의 나라에 있어요.”

“모두 가자.”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도로시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자.”

“그래! 우리 모두 가는 거야!” 양철 인간과 사자가 외쳤다.
“고미워.” 도로시가 말했다. “희들은 모두 정말 착해. 우리 내일 출발하자.”

p. 90-91 다음 날 아침, 도로시와 친구들은 모두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얼굴에 빛나는 햇빛을 받으며 남으로 걸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에메랄드 시를 뒤돌아보았다.

“어쨌든 오르는 사기꾼이 아니었어.” 양철 인간이 말했다. “그는 내게 심장을 주었잖아.”

“그리고 내게는 최고 두뇌를 주었어.”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리고 내게는 용기를 주었어.” 사자가 말했다. “그래, 그는 약속을 지켰어.”

도로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최선을 다했어.’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날 밤 그들은 부드러운 잔디에서 잤고, 그들 위에는 별들만이 떠 있었다.

아침에 그들은 우거진 숲에 이르렀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그들에게 다가와 사자에게 말했다.

“오, 동물의 왕이시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p. 92-93 호랑이는 그에게 코끼리만큼 크고 나무처럼 긴 팔과 다리를 여덟 개씩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에 대해 말했다.

“그 괴물은 모든 것을 죽입니다.” 호랑이가 말했다. “그 괴물은 우리에게 너무 강해요.”

“그러면 너희를 위해 내가 곧 그 괴물을 죽이겠다.” 사자가 말했다.

사자는 괴물과 싸우기 위해 떠났다. 곧 그는 자고 있는 괴물을 발견했다. 흉측한 이빨로 가득한 괴물의 커다란 입이 벌어져 있었다. 그러나 사자는 괴물의 가느다란 목을 보고, 괴물의 등에 뛰어올라 머리를 잘라 해치웠다.

“이제 괴물은 죽었다!” 그가 다른 동물들에게 말했다.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그리고 사자는 그들에게 약속을 했다.

“하지만 먼저 난 도로시를 집에 데려다 주어야 해.” 그가 말했다.

네 친구들은 숲을 떠나 콰들링들의 나라에 이르렀다. 그들의 집은 모두 빨간색이었다. 콰들링들은 키가 작고 뚱뚱했으며, 모두 빨간 옷을 입고 있었다.

p. 94-95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성을 보았다. 성문 앞에는 병사 복장을 한 세 명의 어린 소녀들이 있었다.

“착한 마녀를 만날 수 있게 우리를 데려다 주세요.” 도로시가 말했다. 소녀 병사들은 그 친구들을 성 안으로 데려갔다.

기거서 도로시는 세수하고 머리를 빗었다. 그런 다음 소녀 병사들은 그들을 마녀에게 데려갔다. 그녀는 빨간 옥좌에 앉아 있었고, 매우 아름다웠다.

“뭘 도와 줄까, 애야?” 그녀가 도로시에게 물었다.

도로시는 마녀에게 자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전 캔자스의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녀가 얘기를 끝마쳤다.

마녀는 미소를 지으며 도로시에게 키스를 했다.

“난 널 도와 줄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 은빛 모자가 필요해.”

“가지세요.” 하며 도로시는 그녀에게 모자를 주었다.

p. 96-97 마녀가 허수아비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뭘 할 거죠?”

“전 에메랄드 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그곳 사람들은 제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원숭이들이 당신을 그곳에 데려다 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양철 인간, 당신은 어디로 갈 거죠?”

“원키들이 저에게 아주 친절했어요.” 양철 인간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원숭이들이 당신을 그곳에 데려다 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사자, 당신은요?”

“산 너머에 큰 숲이 하나 있어요. 그곳 동물들은 제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원숭이들이 당신을 그곳에 데려다 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네 친구들이 말했다.

p. 98-99 “당신은 아름다운 만큼이나 착하시군요. 그런데 전 어떻게 캔자스로 가나요?”

“네 은빛 구두는 요술 구두란다.” 마녀가 말했다. “그 구두는 널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어. 그냥 세 번 뼉 다음, 구두에게 널 그곳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렴!”

“저는 전혀 몰랐어요.” 도로시가 말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친구들에게 각각 키스를 하고, 미너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그녀는 토토를 안았다. 그녀는 세 번 뼉 다음, 구두에게 말했다. “캔자스에 있는 헨리 삼촌과 엠 숙모에게 날 데려다 줘!”

그들은 귓속에 바람을 맞으며 공중을 날았고, 헨리 삼촌의 집 바로 앞에 내려왔다.

“드디어 집에 왔어!” 도로시가 말했다.